

수협은행장 재공모 11명 도전... 인재풀 늘어도 내실은 “글썸”

1차 모집서 적격후보 찾지 못해 수협 행추위, ‘관료출신’ 고집 3차 공모 이어질 가능성 높아

차기 수협은행장 공모에 총 11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다만 업계안팎에서는 이번에도 행장추천위원회의 정부 측 위원들이 요구하는 ‘관료출신’이 없어 3차 공모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기 수협은행장 2차 공개모집에 11명이 지원했다. 앞서 수협은행 행장추천위원회는 1차 공개모집을 통해 5명의 후보자와 면접을 진행했지만 적격후보를 찾지 못했으며, 2차 공개모집을 진행한 바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2차 공모에 새롭게 참가한 지원자는 6명”이라며 “여기에 1차 공모에 참가했던 지원자 5명이 모두 재지원 하면서 지원자는 총 11명이 됐다”고 말했다.

1차 공모에 참가한 지원자는 강명석 수협은행 전 감사, 고태순 전 NH농협캐피탈 대표, 김진균 수협은행 경영전략그룹 수석부행장, 김철환 수협은행 기업그룹 부행장, 손교덕 KDB산업은행 사외이사 등 5명이다.



강명석 전 수협은행 상임감사



김진균 수협은행 수석부행장



김철환 수협은행 기업그룹 부행장



고태순 전 NH농협캐피탈 대표이사



손교덕 현 산업은행 사외이사



강철승 한국수산정책포럼 대표



박백수 우체국금융개발원장



박석주 전 수협은행 부행장



이길동 전 수협중앙회 신용부문 수석부행장



정춘식 전 하나은행 부행장

2차 공모에 참가한 지원자는 강철승 한국수산정책포럼 대표, 박백수 우체국금융개발원장, 박석주 전 수협은행 부행장, 이길동 전 수협중앙회 신용부문 수석부행장, 전봉진 전 삼성증권 영업본부장, 정춘식 전 하나은행 부행장 등 6명이다. 11명 전체 지원자 중 수협 측 전·현직 인사는 5명, 외부 금융권 인사는 6명이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인재풀 확대에

도 행장추천위원회가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수협중앙회 측 행추위 위원들은 수협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금융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출신 금융전문가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 측은 공격적인 영업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추진하고, 공적자금 관리 명목의 관료출신을 고집하는 상황이다. 수협은행은 외환위기 여진이 남아 있던

지난 2001년 공적자금 1조1000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수협은행장 선임을 위해 구성된 행추위 위원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가 추천한 사외이사 3명과 수협중앙회 추천인물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은행장 인선을 위해선 위원 5명 중 4명 이상의 동기가 필요한데, 정부측 위원 3명과 수협중앙회 측 위원 2명이 대립하면서 4명의 동

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1차 공모 당시에도 수협중앙회 측 위원은 내부출신 지원자인 강명석 수협은행 전 감사와 김철환 수협은행 기업그룹 부행장에게 표를 던졌지만 정부측 위원이 이를 반대했다. 지원자 중 강명석 수협은행 전 감사는 금융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상임이사 겸 코인재개발원장을 지낸 전력 있다. 손교덕 산은 사외이사는 BNK경남은행장을 역임했지만 1차 공모에서 고배를 마셨다. 2차 공모에 이 같은 경력 이상을 보유한 ‘관료출신’ 지원자가 없어 또한차례 미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협은행의 공적자금 상환 부담까지 지려는 관료출신 지원자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2차 공모에 이전 지원자들보다 더 나은 경력을 보유한 지원자가 없는 상황으로 봐서는 재공모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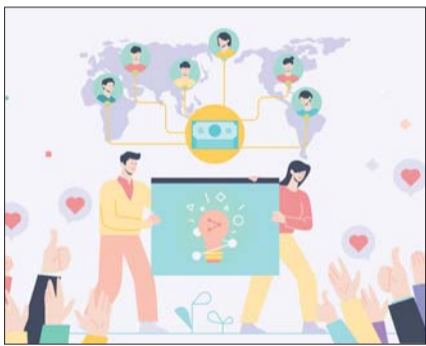
행추위는 오는 26일 서류전형 결과를 발표하고, 면접 대상자를 추려 28일 최종 면접을 실시한다. 한편 오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현 이동빈 행장은 차기 수협은행장이 선임될 때까지 유임된다.

나우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크라우드펀딩 판 키운다... 발행한도 확대

발행한도 연 15억에서 30억으로 상향 벤처기업, 자금조달 용이하도록 지원 사업 수익지분 50% 이상으로 완화

앞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한도가 연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시, 사업에 대한 수익지분 비중은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창업 벤처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조달받고, 중견기업등과의 공동프로젝트가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한도를 연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경우 크라우드펀딩만으로는 충



크라우드펀딩 /유도이미지

분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 한도확대는 주식만 적용된다. 채권의 경우 연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분야도 확대한다. 문화사업, 신기술개발, 산업재산권창출등으로 제한하던 것을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한다. 크라우드펀딩 발행업종을 준용해 금

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허용한다.

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시, 중견기업과의 공동프로젝트가 용이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수익지분 비중도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춘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매투자중개업자)의 유지요건은 강화한다. 유지요건은 등록시 필요한 자기자본 5억원 중 70%인 3억500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현행상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이 같은 유지요건 충족여부를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미달시 퇴출이 1년간 유예됐다. 앞으로는 자기자본 유지조건 위반 여부 판단시점을 매 회계연도 말에서 매 월로, 미달시 퇴출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나우리 기자

KB금융, 산업진흥원과 스타트업 육성

글로벌 진출·투자유치 협력

KB금융그룹은 지난 19일 서울산업진흥원과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KB금융의 핀테크랩인 KBI노베이션허브와 서울산업진흥원 산하의 스타트업 투자유치 지원기관인 인베스트서울센터는 핀테크·ICT 분야 유망 스타트업들에 대해 코트라(KOTRA)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진출과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상호간 협력의 첫번째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스타트업 10개사가 참가하는 ‘글로벌 챌린저스 경진대회’를 22일 개최한다.

참여 스타트업 모두에게는 KB금융



KB금융지주 KBI노베이션허브 고창영 센터장(오른쪽)과 서울산업진흥원 인베스트서울센터 정재욱 센터장이 지난 19일 KBI노베이션허브센터에서 협약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금융

과의 협업 기회를 연계해주고, 양 기관의 다양한 해외 투자 유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스퀘어업 지원을 계획한다. 심사 결과 우수기업으로 뽑힌 3개사에게는 총 20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제공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프놈펜상업은행, 전자결제 대출 상환 협약

디지털 금융서비스 강화

JB금융그룹 손자회사 프놈펜상업은행(PCBank)은 최근 태국 전자결제업체 트루머니와 전자결제 대출 상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프놈펜상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트루머니의 전자지갑 서비스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

트루머니는 태국 재계 1위인 CP그룹

의 디지털 금융 자회사 어센드머니가 운영하는 업체다. 현대 태국과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에 진출했다. 동남아시아에서 6만5000개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지난해 거래액은 80억 달러(약 9조3800억원)에 달한다.

신창무 프놈펜상업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출 고객들에게 보다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



신창무 프놈펜상업은행장과 태국계 전자결제업체 트루머니 관계자가 전자결제 대출 상환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JB금융그룹

으로 강화해 캄보디아 시장 공략에 보다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 ysl@

우리銀 ‘위니미니’, 태블릿브랜치 고도화

종이 서식,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우리은행은 고객을 직접 방문해 금융상품 가입 및 상담이 가능한 원스톱 금융서비스인 태블릿브랜치를 고도화한 ‘위니미니(미니)’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6년 태블릿브랜치를 도입한 이후로 변화하는 금융환경 및 영업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스템을 재구축한 것이다.

위니 미니는 개인고객에 대한 여·수신 신규 및 제신고 기능 외에도 ▲기업

고개에 대한 여·수신 상담 및 신규 ▲QR코드를 통한 신용카드, 개인형 퇴직연금(IRP), 청약저축 등 금융상품 간편 가입 ▲가맹점결제계좌 신청 등으로 업무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종이로 작성하던 각종 서식을 전자문서에 작성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해 금융거래뿐 아니라 위변조 및 분실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의 비밀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고객 휴대폰으로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면 암호화된 번호를 생성하는 비밀번호 사전등록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영석 기자